



부처님 꽃이 연꽃인데 2003년 6월 부터 부처님 주변에 화사하게 피어있다. 연꽃 바위가 관음보살 발밑에 피어있는 모습.

관음보살 이마 밑에 연인 바위, 연봉이 피어있다. 크기가 성인 7~8명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모양이다.

아름다운 바닷가어귀에 자리 잡은 관음성지 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기도드리고 묘한 일만 일어난다

푸른 동해바다위에 나투어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 관음성지휴휴암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백만독 천일철야기도를 드리고 있다. 휴휴암을 다녀가고 기도과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기도축원문도 정성을 다하여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있다.

휴휴암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팔만사천무진번뇌 망상을 모두 놓고 쉬고 쉬라고 휴휴암이라 했더니 얼마나 좋으면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같이 쉬라고 누운채로 나투어 쉬고 계시는 신비한 도량 휴휴암에서는 매년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날 수륙영가천도재를 드릴 때 선망부모와 유주부주 애중고혼은 물론 나로 인해 다치고 고통 받다가 죽은 사람이나 축생들과 미물들까지도 그 슬픔을 달래주고 한맺힌 원결을 풀어주어 좋은 몸 받아서 좋은 세상에 가시도록 하는 뜻이다.

모든 번뇌 쉬면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청정한 귀의처

옛날에 덕 높은 큰스님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생활하며 계율에 어긋난 속된 생활을 일삼다가 병들어 일찍 죽었다.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등에 큰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대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스님은 깊은 선정에 들어 고기의 전생을 관하여 보니 병들어 죽은 제자의 방탕한 생활의 과보로 물고기 몸을 받아 고통 받는 모습이었다. 이를 알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수륙천도재를 베풀어 고기의 몸을 벗게 해주었더니 그날 밤 스승의 꿈에 제자가 나타나서 큰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생에는 환된 수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부탁하기를 "제등에 있는 나무를 베어 묶어와서 뚝딱을 만들어 염불 수행할 때 사용하게 하여 후

세에 귀감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 모든 사찰에서 목어와 뚝딱을 치게 하고 그래서인지 뚝딱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또한 뚝딱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자므로 수행자들도 정진할 때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다.

수륙천도재를 드릴때 집에서 기르던 소나 돼지 닭등 수많은 축생들이나 땅속벌레와 날아다니다 죽은 새들 또한 바다에서 누군가에게 잡혀 비참하게 죽은 수많은 미물들의 위패를 올리고 천도재를 지내주고 기도드리 주었더니, 휴휴암 주지 스님방에 매년 이른 봄이면 수만마리의 날개달린 왕개미떼가 몰려오고 지금은 바다속 중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인지 용궁암 연화법당 고기바위 주변에 수십만마리의 각종 물고기떼가 몰려와서 염불소리 뚝딱소리를 들으며 부처님 상단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듯이 열지어 있는 고기떼들을 보고 용왕방생기도 드리는 불자들이 많이 볼수 있다.

더욱 이상한일은 바다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새들이데 많은 고기떼들의 등이 보이고 지느러미가 툭 튀어나와서 있어도 갈매기들이 그 주변에 있으나 오지 않고 잡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 아닌가 싶다.

삼대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한 어부와 해녀가 말하기를 "평생을 바닷가에 살고 있으나 이런 광경은 처음 보고 고기 반, 물 반 바다 이 주변에는 고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절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방생도 하고 미물들의



1962년 6월 19일 중국과 대만 동북부 해협에서 미군 공군 조종기에 공중 촬영된 관세음보살 성상을 재현해서 휴휴암에 모신 비룡관세음보살.

생명도 보호해 주고 죽은 미물들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좋은 일만 하시더니 바다 물고기들이 고마워서 부처님전에 기도 드리러 온것 같아요."

바다 연화법당 방생 용왕기도 이어져

여러 방송사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TV방영과 신문에 보도된 후 양양군 내수면연구소에서 나와 고기를 잡아 확인하고 관찰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이 곳을 지나갈 수는 있으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고기떼가 한 곳에서 머물며 서식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이변이라고 하며 관찰하고 연구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한다.

법종루에 모셔진 관음법종은 삼천삼백삼십삼관으로 현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종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하며 사방에 관세음보살을 새겨 모신 특이한 종이다. 국내 최초로 순금을 입힌 아름다운 황금종에 이름 새긴 분들은 넓은 종속에 들어가 있을 때 종을 쳐주면 업장이 소멸되고 탁한 기운과 잡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몸도 가벼워지고 앞길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지옥문이 파헤쳐서 지옥중생들도 극락세계로 이끄러워 하신다고 종소리를 울려주는 것이다. 순금을 입힌 아름다운 종을 감상만 하고 손으로 만지거나 끊어서는 안되며, 훼손이 되면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금중에 가족이름을 새기는 것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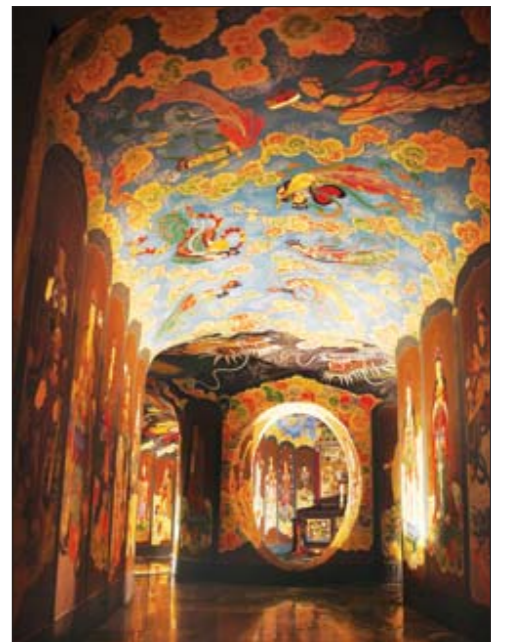
휴휴암 묘적전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휴휴암에서 매년 봉행하는 수륙영가 천도제 모습.



관음성지휴휴암 전경.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